

2024년 예술지원 통합공모 2차 예술기반지원 〈시각예술작품집발간지원〉 최종 심의결과

〈시각예술작품집발간지원〉 사업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심의 최종결과를 안내해 드립니다.

1 최종 심의결과

□ 최종 선정결과 : 총 5건 선정, 50,000,000원 지원 결정(선정률 5.6%)

접수건수(건)	최종선정건수(건)
90	5

□ 최종선정자 명단 * 관리번호순

관리번호	선정자명	사업명	지원결정액(원)
202407868	오인환	시각예술작품집발간지원	10,000,000
202408077	김화현	이동-시점: 다면적으로 본 김화현의 작품	10,000,000
202408085	이세준	공상과학회화_이세준 작품집	10,000,000
202409513	차승언	차승언 작품집	10,000,000
202409669	신형섭	판타스마고리아	10,000,000

2 심의개요

□ 심의대상 : 총 90건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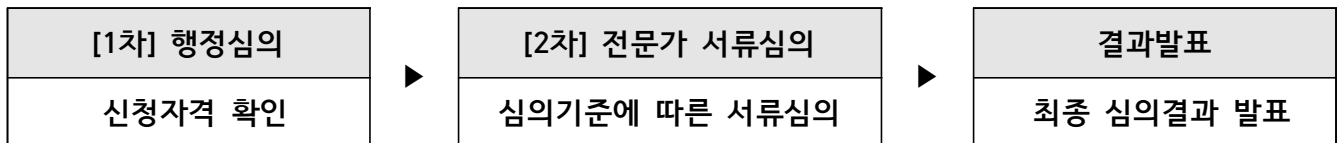
※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진행 방식, 심의 사후관리 등 심의운영절차는 「2024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심의 운영 및 관리기준」에 따라 운영됨.

- 「2024 서울문화재단 통합 심의위원풀」 내 장르별 전문성 및 성비, 세부분야 등 고려하여 3배수 이상 심의위원 풀을 구성함
- 구성된 심의위원 풀에서 무작위 추천방식을 통해 심의위원 섭외순위를 확정하며, 서울문화재단 윤리경영실 참관을 통해 추천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함
- 확정된 우선순위 및 구성기준을 고려하여 섭외를 진행하며, 심의위원의 제척사항 및 기피/회피 해당 여부 등을 공정심의 이행각서와 청렴서약을 통해 철저히 확인하는 등 심의위원의 책임감을 강화함
- 심의위원 사전 워크숍을 통해 사업 및 심의에 대한 충분한 숙지 후 심의를 진행함(심의 전과정은 상호 비공개 원칙을 준수함)

□ 심의위원 명단

심의위원
안대웅(대구미술관 수집연구팀장), 홍보라(Factory2 디렉터), 곽이브(미술가), 윤율리(일민미술관 학예팀장), 박이현(前월간 사진 편집장, 피쳐 디렉터)

□ 심의절차



□ 심의기준

심의내용	배점	세부기준
발간 계획의 적정성	15	- 작품집 발간은 서울문화재단 지원사업 목적에 적합한가 * 작가의 이력 및 주요 활동실적 * 참여자(출판 기획자, 출판사, 평론가 등) 구성
발간 내용의 우수성	35	- 작품집의 수준이 얼마나 우수한가 * 수록될 작업의 우수성, 예술성 * 작업 외 수록될 텍스트(비평문, 작품해설 등) 등의 구성과 내용의 독창성
발간 계획의 완성도	30	-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간 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작품집 발간 준비의 충실성 * 수행내용 및 세부 추진일정의 현실성
작품집의 성과 및 기여도	20	- 발간될 서적이 한국현대미술계의 동시대 흐름을 아카이브 하는데 의미를 지니는가 * 한국미술계 내 미술사적 의의, 미술계 내 기여도

3 향후 절차 및 유의사항

□ 추후 이메일을 통해 교부신청 안내

- 이메일 발송 후 안내문자 발송예정이며, 확인 후 교부신청 진행
※ SCAS에 지원신청 시 작성한 이메일 및 연락처로 안내 예정

□ 사업포기 신청 : 심의결과 발표일로부터 ~5.10.(금)까지

- 선정자가 부득이한 사유 및 중복사업 선정 등으로 인해 본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을 통해 사업포기 신청을 해야 함
- 신청기한 이후 사업포기 시 차기년도 재단 동일 지원사업 신청 시 심의과정에서 배제됨
※ 단, 재단이 인정하는 적절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로 함

□ 차순위 예비선정자 통보

- 사업포기 기한 내 중복선정, 사업포기, 선정 취소건 발생 시 예비선정이 결정된 후보자 내에서 차순위자를 추가 선정하며, 추가 선정자에게는 ~5.17.(금)까지 개별 연락 예정

□ 동일사업 중복선정에 대한 처리

- 2024년 <시각예술작품집발간지원>에 선정된 동일한 사업으로 당해연도 문예진흥기금, 국고 및 지방비를 지원 받을 경우에는 수행할 사업을 택일하여 사업포기기한 내에 재단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함
- 기타 다른 사유에 의해서 중복선정이 확인될 경우에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기타 지원신청 부적격사항 발생 사업에 대한 처리

- 지원신청 시 제출한 지원신청책임제 동의에 따라 선정자는 지원사업 공고 시 안내된 지원신청 부적격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지원사업 포기신청기한 내 서울문화재단에 통보해야 함
- 통보기한 이후에라도 허위사실 등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가능

□ 재심의(이의신청) 제도 운영

- 심의절차 또는 심의위원의 의결 과정 중 심의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함 ※ 단, 이의신청 시에는 사실 확인이 가능한 근거를 증빙자료로 첨부해야 함
- 이의신청 대상
 - 심의절차 중 행정적으로 심각한 오류가 발생되어 잘못된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의 이해관계, 금품향응 수수, 담합, 위계폭력 등 불공정한 심의를 한 것이 드러난 경우
 - 기타 심의과정 및 결과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업무처리가 발생한 경우
- ※ 예술적 수월성에 대한 이의제기는 가치판단 영역이므로 본 이의신청 대상(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 이의신청 신청기한 : ~ 5.2.(목)까지

□ 향후 지원사업 수행 시 행정사항

- 선정 후라도 미정산 및 위반행위 등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은 지원이 취소되거나 처리기준에 따라 처분될 수 있음
- 모든 선정자는 지원 결정된 금액에 따른 교부신청서(필요시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단 예술지원사업 규정 및 의무이행사항에 따라 교부신청서 승인 후 지원금이 교부됨
- 전년도 사업 정산보고 절차 미완료 시 금년도 지원금이 교부되지 않음
- 모든 선정자는 본 지원사업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모든 선정자는 사업완료 후 정산 및 성과보고서 제출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 시 지원금이 환수조치 될 수 있음
- 추후 지원사업 관련 위반행위 처리기준과 그 조치내용은 선정자 개별 공문과 사업별 지원금 집행요령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으로 함

◎ 한 작가의 작품 세계를 폭넓게 집대성한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기획안에 좋은 점수를 주었다. 또한, 업력이 충분하면서 작품 세계를 밀도 있게 확장시킨 부분을 눈 여겨 보았다. 비평과 해제를 위한 필자가 섭외가 된 경우 좀 더 비평집을 어떻게 담론화하려는 계획이 명확하고,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좋은 점수를 주었다. 또 지면이라는 매체에 작품이 가진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는 편집 방향을 고민한 기획안도 우수하게 보았다. 이번 <시각예술작품집발간지원>사업의 지원서들은 작품의 수준이나 기획력, 내용 충실도와 계획이 고르게 우수한 편이었다. 선정되신 분은 이 기회를 통해 작품세계를 한 단락 짓고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로 되길 바란다.

◎ 본 사업은 '시각예술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우수 예술인의 작업을 집대성한 작품집 발간을 지원하여 동시대 미술계의 유의미한 작업의 흐름과 예술인의 철학을 공유 및 확산하는 계기 마련'이 목적인데, 대부분 본인의 작업을 정리하는 정도로 귀결되어 아쉬웠다. 동시대 미술에서 어떤 이슈를 제시한다는 건 곧 작가가 나의 작업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이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본 사업은 '첫 개인전 이후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예술인'을 지원 자격으로 명시하고 있다. 필연적으로 지원하는 작가들의 경력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는 명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명성과 높은 평가와는 다르다. 경력이 많은 작가일지라도 사업 목적에 맞는 계획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이 사업의 목적은 단순 도록 제작이 아니기에 작품설명 방식의 구성과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시각예술작품집발간지원>의 심의는 본 사업이 전시 제작 또는 작품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과 어떤 변별점을 가져야하는가를 고민하였다. 전시 제작이나 작품 연구를 통해 해소되는 것이 알맞은 내용은 최대한 지양하고, 작품집이라는 뜻에 걸맞게 단행본의 형식을 갖추으로써 의미를 완결하거나 파생할 수 있는 내용을 보고자 했다. 구체적인 제작 계획의 유무와 협업자들의 전문성, 제안자가 작가로서 쌓아온 시간과 경력을 고려하였다.

◎ 활동경력 10년부터 35년이 넘는 작가까지 다양한 작업을 진행하는 지원자들의 작품집 발간 계획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활동경력의 각 주기마다 지원의 목적이 조금씩 상이한 경향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간의 작업 활동을 한데 묶어 정리하고 기록화하려는 시도, 다음 챕터의 작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 차원의 시도, 특정 기획 아래 작업세계를 재맥락화하는 시도, 해외에서의 활동과 프로모션을 목표로 하는 시도가 보였다. 반면, 지원서 내용이 작품집 발간에 대한 당위성보다 작품의 우수성을 소개하려는 사례나 작품집의 개인적 의의 설명에 치중된 지원서도 적지 않았다. 본 사업의 취지와 심의지표를 바탕으로, 동시대 한국현대미술계에서 아카이브적 가치와 활동 실적을 고려하였고, 발간 계획에서 작업세계의 핵심을 중심으로 구체성과 독창성을 보이는 지원서를 높이 평가했다.

◎ 올해 지원의 대부분이 첫 개인전 이후 약 10-1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 작가의 커리어 중간단계에서 그 간의 다양한 비평과 또 작품집 발간을 위해 새로운 비평을 요청하며 작품의 변화를 시간 순으로 구성하는 계획인 듯하다. 출판사와 이미 작품집 구성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잡은 작가도 있지만 대부분은 작품집을 발간하기엔 아직 초기 단계로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또, 인쇄매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작품이 종이의 물성을 통해 잘 전달될 수 있는 작품집이자 작가의 커리어가 다양한 변곡점들을 지나며 새로운 주제들과 만나 유기적인 서사를 이룰 수 있는 지를 보고자 하였다.